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8>

편협하지 않아야 천하지 않다

학승이 물었다.
“맑고 맑아서 한 점의 얼룩도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그런 비천한 자는 두지 않는다.”
問 澄澈絶點時如何
師云 老僧者裡不著客作漢

“봉황새가 날아올라가도 도달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디에서 날아 왔는가?”
問 鳳飛不到時如何
師云 起自何來

“실제리지에서 한 티끌도 받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일체가 그 속에 있다.”
問 實際理地不受一塵時如何
師云 一切總在裡許

객작한(客作漢)은 사람에게 고용돼 경작하는 비천한 사람을 말한다. 맑고 맑아서 한 점의 얼룩도 없을 때는 마음이 쉬어서 매우 고요한 경지에 들어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수십 년 이상 수행해야 가능한 일이므로 대단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선방에서 평생 선객으로 지냈던 어떤 노스님에게 직접 들은 말인데, 그분은 선방(禪房)에서 40여 년을 수행했는데도 하루 중에 일어하기도 간혹 한 번씩 잠념이 들 때가 있다 했다. 그러니 얼마나 수행해야 얼룩 한 점 없는 경지에 이르렀는가.
그런데 설사 누가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개 남의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식객과 같이 비천한 자일뿐이다.
그럼 누가 비천하지 않은 자인가? 편협하지 않은 사람이다.
누가 편협하지 않은 사람인가? 징징절절(澄澄絶絶)에도 머무지 않는 사람이다.

봉황새가 날아올라도 도달할 곳이 없는 것은 원래 도착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봉황은 새 중의 새이다. 세상에 힘센 장수가 많지만 자기를 이긴 자보다 더 강한 장수는 없다.
수행자가 집을 버리고 출가하여 자기를 이긴 자가 되려는 것은 새 중의 왕인 봉황새의 기질을 타고 나서 그렇다.
많은 출가자들이 날아 올라가기를 하지만 아무도 도착하지는 못한다. 그 누구도 도착지에 도착한 사람은 없다. 부처님도 도착지에 도착한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로 수행의 길이 멀고 험하다는 말이 아니다. 원래 도착할 곳이 없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이다.
이상세계를 꿈꾸면 안 된다. 임문하면 제일 먼저 이상세계를 쫓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불교는 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보면 출발지가 곧 도착지이다.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기가 있는 장소를 깨닫는 것일 뿐이다. 맨 나중에도 손에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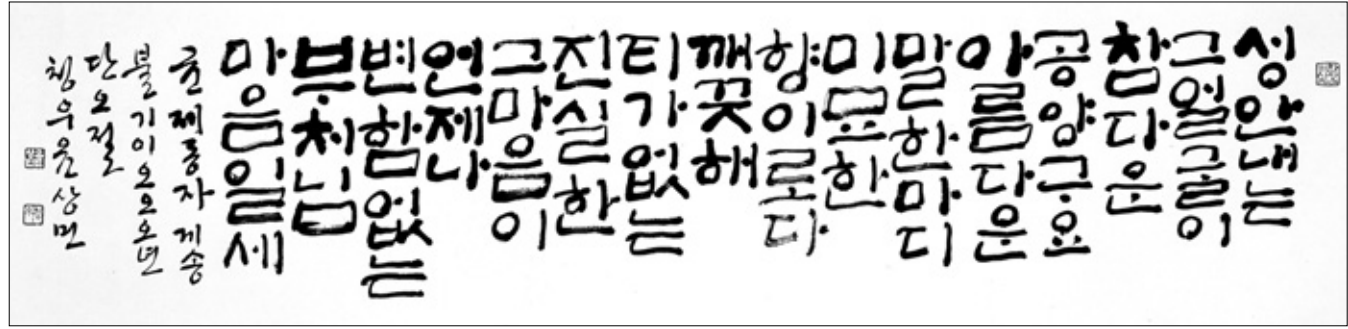
실제리지(實際理地)는 본질의 세계이다. 만가지 법칙이 나오는 근원점(根源點)이다. 그곳은 허공과 같이 텅 빈 세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티끌도 있지 않다. 그야말로 청정무구(淸淨無垢)이다.
그렇지만 일체 만물은 거기에 포함돼 있다. 허공은 텅 비어 있으나 만물이 허공 속에 있듯 실제리지는 빈자리지만 만물의 이치나 현존하는 만물이 거기에서 나온다. 즉, 허공조차도 실제리지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수행자가 수행함은 실제리지에 들어가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리지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쉬는 것이다. 마음을 쉬면 멀리 보지 않아도 다 드러난다.
흐린 물을 가라앉히면 맑은 물이 나타나듯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쉬고 또 쉬면 자기의 정체성과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뜻이 한순간에 모두 나타난다.
마음이 부처이고,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이 세계는 이미 구원 되어있다는 말은 허튼 소리가 아니다. 아직 깨닫지 못해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학승이 물었다.

무불선원 선원장

운상민의 서화산책 ㉞ 공양구(供養具)



供: 이바지할 공
裡: 속 리
妙: 묘할 묘
染: 물들 염

성 안내는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

面上無嗔供養具 口裡無嗔吐妙香 心裡無嗔是珍寶 無垢無染是真常(면상무진공양구 구리무진토묘향 심리무진진보 무구무염시진상)
얼굴에 화가 없는 그것이 공양이요, 입에 화가 없으면 미묘한 향기를 토한다. 마음에 화가 없는 것이 귀한 보배요, 때도없고 오염도 없는 이것이 참되고 영원한 것일세.(원계승) -균제 동자
* 이 계승은 문수보살의 시자인 균제(均提)동자의 계승으로 위 작품의 내용으로 번역돼 널리 알려져 있다.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김희국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선어록 해제 ㉞

한국선과 선어록 19

선학입문(禪學入門)

선수행 입문초보자를 위한 지침서

저자 김대현은 자신의 서문에서 <선학입문>에 대해 일찍이 전승돼 오던 천태대사의 <석선바라밀차제선문>을 가지고 전체 분량을 삼분의 일로 줄이고, 구성의 체제에도 약간의 변형을 가해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꾸몄다고 한다. 저자 김대현에 대해서 자세한 전기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 서문을 통하여 보면 19세기를 살았던 인물로 간주된다.
한국불교전서 제10책에 수록본 <선학입문>의 구성은 2권본 4문으로서 다음과 같다.

것이요.
호흡을 다스리는 제2의 식문(息門)으로는 먼저 수식(數息)·수식(隨息)·관식(觀息)이 있고, 다음으로 육계정·초선·제이선·제삼선·제사선·사무량심·공무변처정·식무변처정·무소유처정·비상비비상처정의 선정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호흡을 해아리는 수(數)·호흡을 따르는 수(隨)·번뇌의 마음을 제어하는 세 가지 지(止)·사제와 심이연기와 구상(九想)과 팔배사(八背捨)를 닦아가는 해행관(慧行觀)과 득해관(得解觀) 및 관식(觀息)의 실관 등 세 가지 관(觀)·수수지관(數隨止觀)하는 마음을 돌이켜 보는 환(還)·방편수행의 완성인 정(淨) 등 육묘문(六妙門)이 있다. 기타 호흡과 몸과 마음을 개별적으로 닦아가는 십육특승(十六特勝)과 전체적으로 닦아가는 통명관(通明觀) 등이 있다.

- 김대현이 불인 1855년 8월에 찬술하면서 불인 <선학입문서>
- [법례]
- 선학입문권상
- 제1 입식문(入式門)
- 제2 식문(息門)
- 선학입문권하
- 제3 색문(色門)
- 제4 방편문(方便門)
- 석전 박한영이 1918년 5월 상순에 불인 발문
- 학인 오철
- 호가 불인
- 1918년 5월
- 하순에 불인
- 발문 서선학
- 입문후(書禪學入門後)
- 육당 최한선이 1918년 5월에 불인 발문

천태대사의 <석선바라밀차제선문> 요약·발췌 올바른 수행의 진행과 점검으로 활용토록 제시

<선학입문>에서는 수행에 입문하는 제1의 입식문에서는 먼저 선바라밀에 대한 뜻을 해석한다. 다음으로 선을 닦아가는 네 가지 명칭으로 세간선, 역세간역출세간선, 출세간선, 비세간비출세간선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세 가지 선수행의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곧 호흡수행에 대한 아나파나문(阿那波那門), 신체수행에 대한 부정관문(不淨觀門), 마음수행에 대한 삼매의 심문(心門) 등이다.

제3의 색문은 부정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체가 부풀어오르는 창상(脹想)·시체가 파괴되는 괴상(壞相)·시체에 피가 온통 엉겨 붙는 혈도상(血塗想)·시체가 굵아터지는 농란상(濃爛想)·시체의 색깔이 검푸르게 변하는 청어상(靑淤想)·시체가 동물들에게 뜯어 먹히는 담상(噉想)·시체가 살이 해체되고 흩어지는 고출어지(骨出離)·해골만 남은 골상(骨想)·불에 태워지거나 매장되는 소상(燒想)의 구상(九想), 염불(念佛)·염법(念法)·염승(念僧)·염계(念戒)·염사(念捨)·염천(念天)·염입출식(念入出息)·염사(念死)의 팔념, 무상상(無常想)·고상(苦想)·무아상(無我想)·식부정상(食不淨想)·일체세간불가락상(一切世間不可樂想)·사상(死想)·부정상(不淨想)·단상(斷想)·이상(異想)의 십삼, 팔배사(八背捨), 팔승처(八勝處), 심번처(十遍處), 구차제정(九次第定), 사자분신삼매(師子奮迅三昧), 초월삼매(超越三昧) 등이다.

이어서 세 가지 선수행을 여법하게 성취하기 위한 내·외의 방편문에 대해 설명한다. 외방편으로는 계율을 수지하고 의식(衣食)을 조절하며 조용한 곳을 선택하고 반연을 벗어나며 선지식을 참문하는 다섯 가지 예비조건, 색·성·향·미·촉의 다섯 가지 감각을 제어할, 탐욕·성냄·수면·산란·의심의 다섯 가지 번뇌를 벗어남, 음식·수면·몸·호흡·마음의 다섯 가지의 조화, 발원·정진·정념·선교방편·일심의 다섯 가지 수행 25가지 방편이다. 내방편으로는 마음을 한 가지 대상에 두는 계연지(繫緣止)·마음을 조절하는 제심지(制心止)·마음을 체득하는 체진지(體眞止) 등 세 가지 지문(止門), 선근을 증장하고 악근을 대치하는 선약의 두 가지 증험, 편·대치·성향·차제·제일의 등을 따르는 다섯 가지 안심법, 갖가지 치병법, 번뇌마(煩惱魔)·음입계마(陰入界魔)·사마(死魔)·육계천자마(欲界天子魔) 등 다섯 가지 마사를 알아차리는

제4의 방편문은 제일 입식문에서 말한 내방편과 외방편을 자세하게 설명한 대목이다.
이와 같이 <선학입문>은 천태대사의 <석선바라밀차제선문>을 필요로 대목으로 요약하고 발췌하여 선수행에 입문하는 초보자를 위한 지침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어떤 전문가용 뜻지않게 그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에 그 전체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몸과 마음의 준비 및 실제의 수행에서 그 차례와 갈래와 방편과 증과와 증험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올바른 수행의 진행과 그 점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 영 보 이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분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쪄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50g 산차 75,000원 38,000원
100g 산차 70,000원 65,000원
330g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99,000원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 판매원 : 마하물 02)732-152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양지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